

# 교과서 불교왜곡·비하 '시정'

### 조계종 교과서연구회 4월 결성

### 교사용 불교참고서도 개발 예산 태부족...성과 의문

조계종교원(원장 성타) 산하기구로 '교과서 연구위원회(이하 교과서위원회)'가 결성된다. 포교원은 20일 포교연구실에서 포교연 연구국장 법경님과 교법사단장 고우익법사(동대부교), 전국교사불자회장 임인숙교사(이화여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모임을 열어 4월 초 교과서위원회를 결성키로 했다.

교과서위원회는 교과과정 연구분과와 종교교과서 연구분과 등 5개 분과를 두어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한 불교교과서 개편 및 신중도서 개발 △각종 교과서의 불교관련 내용 조사 및 자료화 △교사용 불교관련 참고자료 개발 △편향 왜곡기승된 교과서 내용의 시정 요구 등의 활동을 펼친다. 교과서위원회 준비모임은 전국교사불자회와 교법사단이 각 분과를 분담키로 했다. 준비모임은 또 각 분과 연구를 토대로 10월 초 세미나를 열어 연구내용을 1차 검토키로 했다.

교과서위원회는 이같은 비하·왜곡에 대한 시정에 중점을 둔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올해 교과과목에 대한 연구와 심의를 통해 39년 최종 확정한다는 교육부의 교과서 개편시기에 맞춘다



◇경제 한파로 인해 광고수입의 대폭감소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한 불교방송·불교TV. 초간속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방송포교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25일 열린 불교TV 이사회.

그동안 교과서의 불교 비하·왜곡에 대한 지적은 수차례 있었다. 그러나 권위를 갖춘 중단차원의 단일창구를 통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일선 불교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교과서에 불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하거나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가 아니다. 생사의 괴로움, 번뇌의 속박을 끊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어 끝없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서산대사가 《선가경》에서 밝힌 출가의 근본 취지다.

6일(음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절이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사문사위를 바치며 출가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스님들이 그 본뜻을 모르거나 잊을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가끔씩 '출가정신'

## 목어

### 과문서

출가정신'은 출가수행자가 어떻게 관할해야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평안(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의식의 근본을 제거하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대착까지도 눌러 버리도록 배우라. 눈으로 보는 것에 탐내지 말라. 저속한 이야기에서 귀를 멀리하라. 세상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 고통을 겪어도 비판에 빠져서는 안된다.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

말고 칭찬을 듣더라도 우물거리지 말아라. 오만분손하거나 불화를 가져올 말을 해서도 안된다."

초기경전 《숫타니파야나》는 출가자의 몸가짐까지도 상세히 일러준다.

올해는 조계종의 총무원장과 종회 의장, 9개 교구본사의 주지임기가 끝나는 해다. 총무원장 임기는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바람이 이슬처럼 '과문서'가 나돌고 있다.

본사 주지자리를 놓고도 후보로 오르려는 스님들에 대한 비방의 소리가 들린다. 남의 잘못은 파사형정 정신에서 드러내야한다.

시기·질투에서가 아니라 전체를 이

롭게하는 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따라서 과문서 작성·배포자는 자기를 떳떳이 밝히야 한다. 이름을 숨겨야 한다면 과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도 그런 일은 비겁한 짓에 불과하다.

최소한 표현이지만 4년전에도 이난에서 '스님벼슬 담벼슬만도 못하다'는 말을 인용했다. 제발 수행공동체답게 종단의 주조자라 조용하게 정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올 출가절에는 스님들이 '왜 출가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부처님을 '성주 아들'로 격하했다. 5학년 도덕교과서에는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존칭하면서도 대각국사 의천스님을 '의천'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회 5-1 174쪽에서는 '산대놀이의 내용은 타락한 양반을 비웃고, 계율을 깨뜨린 승려를 타하며 상식없는 사람을 나꾸리는'으로 기술해 자칭 스님과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서위원회는 이같은 비하·왜곡에 대한 시정에 중점을 둔다.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올해 교과과목에 대한 연구와 심의를 통해 39년 최종 확정한다는 교육부의 교과서 개편시기에 맞춘다

는 방침이다. 교과서위원회는 내용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올바른 기술(記述)을 대안으로 제출한다.

그러나 올 한해 교과서위원회 예산이 고작 8백만원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교법사는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1차적인 학습교재이며 교육의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고 "교과서를 다루는 위원회의 의욕을 현실화하기 위한 종단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각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안까지 나오고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 총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방송의 주수입원이 붕괴될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성낙수 사장을 비롯 3사 종교방송 사장단과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의 부당함"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교TV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불교TV도 2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방송사업비,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44억원의 올해 예산을 승인했다. 여기서 프로그램수수료 16억원과 광고 및 사업수익 등 37억원을 재하면 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또 경제한파로 인해

## 적자... 긴축... "묘책 찾자"

### BBS·btn 예산확정...올 살림 전망

공공유행사건, IMF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등 내외적 요인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불교방송(사장 성낙수)과 누적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불교TV(사장 정우성)는 올해 살림을 어떻게 살까.

두 방송사는 이미 구조조정 등으로 적자폭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가중되는 재정 압박으로 인건비 및 제작비 추가 절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

지단 연말부터 매월 케이블TV 가입자수가 2천명씩 감소하고 있어 수신료 수입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불교방송은 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각 종단 총무원장의 고문 위촉, 후원회원 확보, 새 이사 영입, 성지순례와 종단의 각종 행사 대행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종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경제한파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재단이사 수를 늘리는

의견도 있어 10명의 이사를 증원할 경우 30억원의 수입이 들어와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사 출연금액이 50억원을 넘어, 3억 출연금을 낼 수 있는 이사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 이사 영입에 기대를 하고 있다.

불교TV는 또 한차례의 대대적인 주식 공모를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한파로 인해 동참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고 사찰 및 심방광고 유치, KBS를 비롯한 6개 지역민방 및 미국 위성 K-TV 등에 프로그램 판매 등 수익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

김주일 기자

2월15일 헌정사 50년만에 국민의 뜻으로 첫 정권교체를 실현한 새 정부가 탄생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불차모임은 실질적으로 여당이 주도하여 왔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불차모임 연동회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어느때 보다 크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연동회 박상규회장(국민회의 부총재)을 만났다.



-해방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무엇보다 연동회의 활동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연동회는 국민국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1천만 불교도와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계획으로 각 지방 유망사찰에서 정기법회를 병행하여 대덕스님들의 호국을 위한 법률문

## 수요 인터뷰

국민회의 연동회 박상규 회장

## "불교관계법 개정 힘쏟을 터"

발뺌했습니다. 불교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국민국복법제도 후원회 계획입니다. 창립이후 추진해온 불교관계법의 개제작업과 사찰환경보존정책도 계속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로의 변화와 경제위기 극복의 두가지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불교계에서는 현재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여러가지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교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불차모임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직·간접적 유착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었습니까.

▲연동회에서는 불교계의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불교가 정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영란 기자

## "공원 보존위해 국민생태교육"

### 조계종 사찰환경포럼

국립공원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해 경관생태학을 활용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24일 대구 진각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사찰환경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도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경관생태학은 경관구획안에서 생태계의 공간적 크기·배열의 규칙성등의 구조적 내용

## 국난극복 법회 적극지원 사찰환경보존에 역점

회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직을 맡으시는데 활발한 경제분야 활동도 퍼오셨는데 불차모임인 조직의 활성화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불차 모임이 함께 모여 신생장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불교계와 개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불차모임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직·간접적 유착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었습니까.

▲연동회에서는 불교계의 내부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불교가 정치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 공간적 형상이 자연에 상호작용·유동변화등의 기능적 측면, 나아가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규명한다"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전통가람의 보존간의 갈등도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할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하석 논설위원(영남일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청과 같은 집행행정부구로 승격하고 관리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창식 사무국장(대구 환경련)은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운동 전개 △개발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성립과 △권역별로 토론회 세미나와 생태문화행동의 보존운동 사업전개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윤호 기자>

##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안내

###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서 미리 보覧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 ◆ 수록 내용 ◆

- 불족 발원문과 불족 법어  
부처님오신날 불족 발원문/부처님오신날 불족 법어/부처님오신날 불족 범회 식순
- 부처님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부처님의 탄생이야기/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 등을 밝히며  
등을 밝히게 된 유래/등의 종류/등을 밝히는 행사들
- 관불의식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 등공양의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 부처님의 생애

신국판 72페이지, 범보시 특가: 1,500원

###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신국판 80페이지, 범보시 특가: 1,500원

###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팩스(02)738-8682

-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범회안 내, 범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 범보시 특가/1,500원
- ◆ 크기/신국판, 64페이지

※ 농협 온라인번호  
053-01-127096  
(예금주: 선문빈)

##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봉축현수막



품명	규격	가격
현수막	90cm×6m	40,000원
	90cm×8m	50,000원
	90cm×10m	60,000원
불자의집 교패	2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차량용 스티카		300원
어깨띠	1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2,500원
리본	일면	220원
	고급	330원
귀빈용	500개이상 주문시 사찰명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02)723-4306·7 FAX:(02)738-8682